

石油類稅制의 全面的 改編을 요구하고 나선 日本石油業界의 속사정

金 乾 治
(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

◇ 稅制改編要求의 배경

石油需要의 減退와 換差損등 구조적 不況에 허덕이고 있는 日本 石油業界에서 최근 石油類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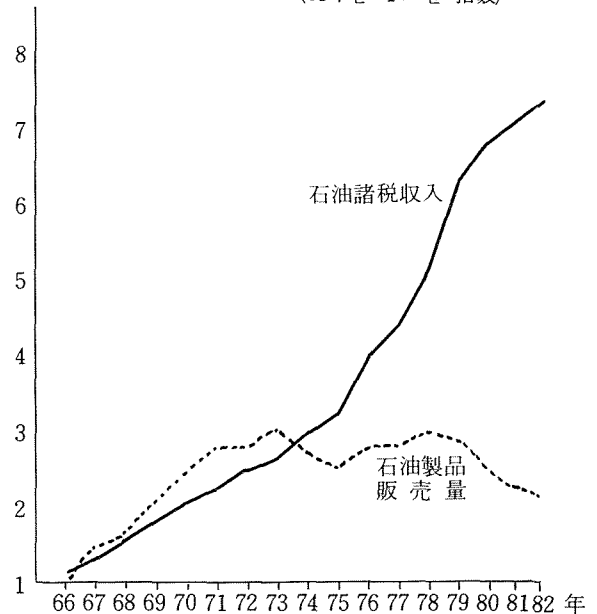
年間 2조円이 넘는 稅負擔의 경감, 가솔린稅 및 輕油來稅등 特定財源의 재조정과 대폭적인 歲入결함으로 예상되는 石油諸稅의 引上阻止등 日本石油業界는 死活을 걸고 稅制改正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稅制改正요구의 배경에는 代替에너지에 대한 石油의 價格경쟁력의 회복, 素材産業의 에너지 코스트의 절감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깔려 있다.

한편 經團連에서도 業界存立의 위기에 직면한 素材産業을 구제하기 위해 原油關稅와 石油稅의 감면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어 石油諸稅의 전면적인 재검토캠페인은 産業界 전체의 문제로 浮上하고 있다.

『過剩設備의 처리, 過當競爭體質의 개선등 石油業界가 직면한 문제는 허다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石油社들이 안고 있는 엄청난 赤字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換差損對策을 포함한 구조개선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무거운 稅負擔으로 약화된 石油製品의 價格競爭力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石油諸稅로 國內 石油製品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높아져 결과적으로 素材産業의 체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가능

한 한 油價를 引下하는 방향으로 稅制의 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지난 5月末에 열린 石油連盟의 82년도 定期總會에서 4選된 永山時雄 石油連會長(昭和石油社長)의 취임사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永山회장이 石油業界의 구조개선사업과 함께 중요과제로서 石油諸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각종 石油類稅는 石油業界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림 1〉 石油諸稅收入과 石油製品販賣量推移 (65년을 1로한 指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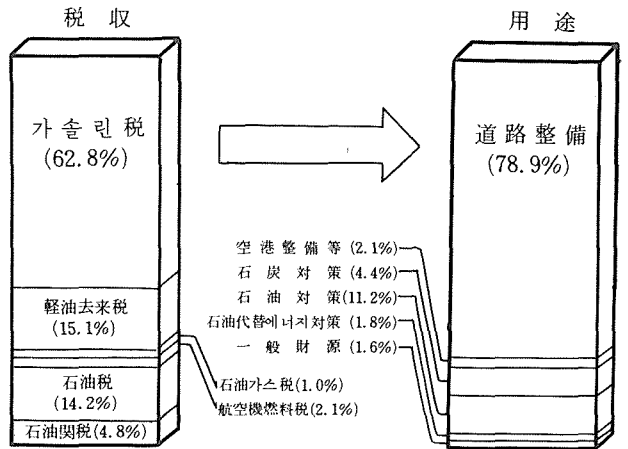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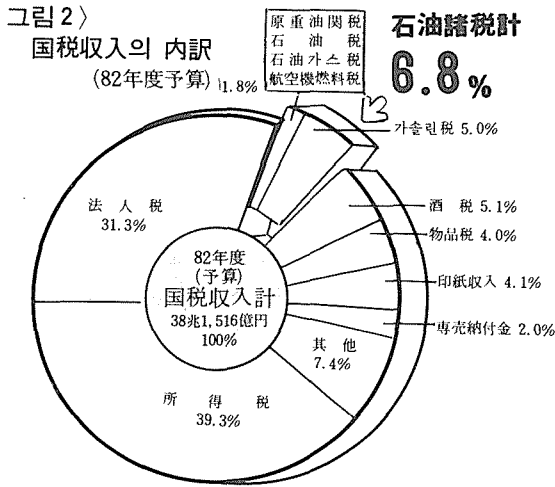


그것은 ① 石油需要가 지난 79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反해 石油諸稅는 增稅 등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한편, 石油製品價格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石油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② 石油諸稅收는 道路財源 외에 石油對策보다도 오히려 代替에너지開發에 투입됨으로써 「石油의 희생」에 의한 代替에너지開發이 진행되고 있으며, ③ 代替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용촉진의 의미에서 금융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강구되고 있으나 課稅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결국 石油製品의 경쟁력이 石油諸稅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 石油類稅收 및 내역

82年度 予算中 石油諸稅에서 들어오는 歲入合計액은 3조 5백32억圓으로 전망되고 있어 國稅收入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소득세 39.3%, 法人稅 31.3%에 이어 第3位의 재정수입이 되고 있다.



註：石油稅收 또는 用途(3兆532億圓)을 100으로한 경우의 比率.

(表 1) 石油諸稅收人과 用途(82年度)

稅 別	稅 收 (82年度予算)	用 途	
石油 消費 稅	가솔린稅	道路整備	1兆9,160億圓(100.0%)
	輕油去來稅	道路整備	4,624 " (100.0%)
	石油가스稅	道路整備	320 " (100.0%)
	航空機燃料稅	空港等整備	638 " (100.0%)
	石油稅	石油對策 石油代替에너지對策 一般財源	3,313 " (77.0%) 537 " (12.0%) 490 " (11.0%)
計	2兆9,082 "	—	—
石油閔稅 (原重油閔稅)	1,450 "	石炭對策 石油對策	1,347 " (93.0%) 103 " (7.0%)
合 計	3兆0,532 "	道路整備	2兆4,104 " (79.0%)
		空港等整備	638 " (2.1%)
		石炭對策	1,347 " (4.4%)
		石油對策	3,416 " (11.2%)
		石油代替에너지對策 一般財源	537 " (1.7%) 490 " (1.6%)
計	3兆0,532 " (100.0%)		

日本の 石油稅制는 原油가 수입된 후 石油製品化되어 최종소비자의 손에 이를 때까지 우선 原油의 단계에서 原油閔稅, 石油稅가 부과되며, 製品단계에서 제품별로 石油가스稅, 가솔린稅, 輕油去來稅, 航空機燃料稅가 있다.

例를 들면, 현재 石油元売会社에서 일반주유소에 파는 가격은 kl당 약15萬圓. 이 중에는 原油閔稅=kl당 6백40圓, 石油稅 = CIF價格+閔稅에 3.5%의 石油稅가 부과되며, 다시 제품단

□ 海外動向 □

계에서 가솔린稅(揮發油稅·地方道路稅) = kl 당 5 만 3 천 8 백圓이 포함되어 있다. 注油所에서 팔리는 現行 휘발유가격을 l 당 1 백 70 圓으로 볼 경우 적어도 그 3분의 1은 稅金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 밖에 原油關稅와 石油稅가 있다. 原油關稅는 50년대 후반의 에너지革命으로 사양화된 石炭産業의 지원을 위해 잠정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價格의 石炭보다는 優位에 있는 石油에 關稅를 부과하여 石炭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그 稅收을 石炭産業의 지원 자금으로 쓰고 있다.

◇ 名分없는 石炭産業補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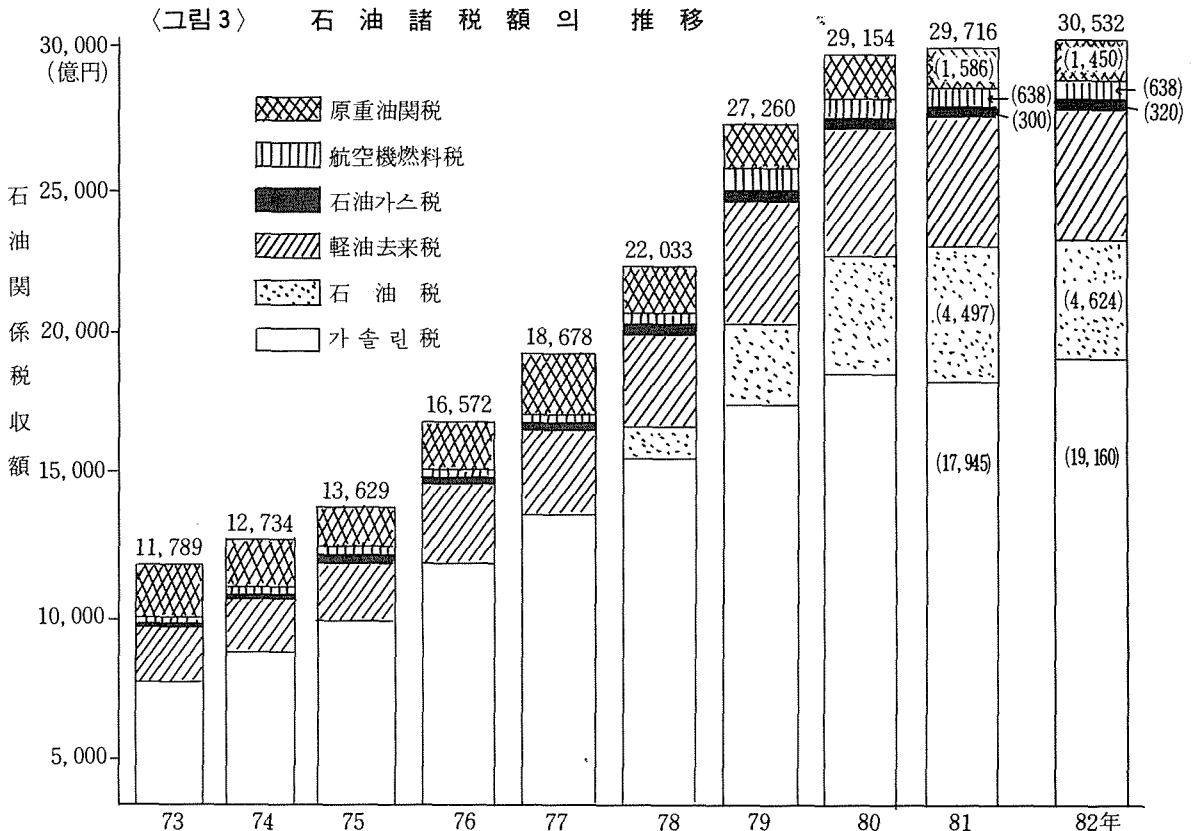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에는 石油價格이 石炭을 크게 上回하고 있으며, 또 海外輸入炭은 石油代替에너지의 主役으로 再浮上하고 있어 原油關稅를 그대로 존속시킬 정책적 의미가 없어졌으며 또 石油類稅制 그 자체가 과거의 유물이 되고 말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第2의 石油關稅로 일컬어지는 石油稅도 不合理하다는 點에선 原油關稅와 다를 바가 없다. 78年 6월에 신설된 石油稅는 원래 石油備蓄 등 석유정책재원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課程方式에 原油의 輸入價格을 기초로 한 從價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石油稅가 만들어진 이후의 原油價格의 高騰은 석유업계에 실질적으로 대폭적인 稅부담의 증대를 가져 왔다.

◇ 稅負擔增加와 稅收轉用

石油稅가 만들어질 당시의 原油價格은 CIF기준으로 배럴당 14달러였던 것이 79년에는 배럴당 37달러로 거의 3 배나 상승했다. 原油價格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78년에 1 천 46억圓이었던 石油稅의 收稅규모는 82년에는 4 천 3 백 40억圓으로 늘어났다. 石油稅收은 이미 매년 石油政策에 쓰이는 지출을 상회하는 세입규모로 커졌으며, 다액의 잉여분은 石油政策財源이라는 본래의 목

(그림 3) 石油 諸 稅 額 의 推 移



(註) ① 81, 82年度는 予算.
② 73~80年度는 決算

적에서 벗어나 石油代替에너지對策이나 일반재원으로 쓰여지고 있어 이것 역시 石油業界의 불만이 되고 있다.

日本 石油業界가 石油稅制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이면에는 石油稅수입의 용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2년도 예산을 보면, 石油諸稅收入은 총 3조 5백32억圓. 그 내역은 石油消費稅부門에서 가솔린稅 1조 9천 1백60억圓, 輕油去來稅 4천 6백24억圓, 石油가스稅 3백20억圓, 航空機燃料稅 6백38억圓, 石油稅 4천 3백40억圓 등 총 2조 9천82억圓의외에 原油關稅 1천 4백50억圓 등이다.

이 중 가솔린稅, 輕油去來稅, 石油가스 稅는 全額 道路整備特定財源으로 쓰이고 있는데 石油諸稅收入을 100으로 할 경우, 78.9%가 도로정비에 쓰여지고 있다. 이 밖에 石油와 競合관계에 있는 石炭, 産業用 LNG 등 石油代替에너지에도 각각 4.4%(1천 3백47억圓), 1.8%(5백 21억圓)가 할당되고 있으며, 一般財源에의 轉用額도 1.6%(4백90억圓)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石油對策費는 겨우 3천4백32억圓이 계상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石油로부터의 稅收 3조 5백 3천 2억圓의 11.2%에 불과한 규모이다.

〈表- 2〉 石油諸稅增稅의 經緯

(1) 原重油關稅增稅의 經緯

(圓/kℓ)

		原油關稅(國)	A 重油	B 重油	C 重油
危機前	61年 6月 原重油關稅의 從量稅化	320	820	630	570
	62年 4月 原重油關稅의 引上	530			
	63年 4月 原重油關稅의 引上	640	955	730	660
危機後	77年 4月 原重油關稅의 引上	750	1,070	835	750
	78年 6月 原重油關稅의 引上(石油稅의 新設에 따라)	640	955	730	660
	82年 4月 重油關稅의 引上	640	1,640	1,260	1,140

(2) 石油消費稅增稅의 經緯

(圓/kℓ)

		() 안은 인상률	가솔린稅(國)	輕油去來稅(地)	石油가스稅(國)	航空機燃料稅(國)	石油稅(國)
危機前	51年 1月 加솔린의 從量稅化	(11,000圓/kℓ)	11,000				
	54年 4月 加솔린稅引上	(18%)	13,000				
	56年 6月 輕油去來稅新設	(6,000圓/kℓ)	"	6,000			
	57年 4月 加솔린稅引上	(41%)	18,300	"			
	" 輕油去來稅引上	(38%)	"	8,000			
	59年 4月 加솔린稅引上	(24%)	22,700	"			
	61 " 輕油去來稅引上	(30%)	"	10,400			
	61年 4月 加솔린稅引上	(15%)	26,100	"			
	" 5月 輕油去來稅引上	(20%)	"	12,500			
	64年 4月 加솔린稅引上	(10%)	28,700	"			
	" 輕油去來稅引上	(20%)	"	15,000			
	66年 2月 石油가스稅新設	(5,000圓/t)	"	"	5圓/kg(2.80圓/ℓ)		
	67年 1月 石油가스稅引上	(100%)	"	"	10圓/kg(5.60圓/ℓ)		
70年 1月 石油가스稅引上	(75%)	"	"	17.50圓/kg(9.80圓/ℓ)			
72年 4月 航空機燃料稅新設	(5,200圓/kℓ)	"	"	"	5,200		
73年 4月 航空機燃料稅引上	(100%)	"	"	"	10,400		
危機後	74年 4月 航空機燃料稅引上	(25%)	"	"	"	13,000	
	" 加솔린稅引上	(20%)	34,500	"	"	"	
	76年 4月 輕油去來稅引上	(30%)	"	19,500	"	"	
	" 7月 加솔린稅引上	(25%)	43,100	"	"	"	
	78年 6月 石油稅新設(從價稅)(CIF 價格+關稅)× 3.5%		"	"	"	"	(CIF + 關稅)×3.5%
	79年 4月 航空機燃料稅引上	(100%)	"	"	"	26,000	"
" 6月 加솔린稅引上	(25%)	53,800	"	"	"	"	
" 輕油去來稅引上	(25%)	"	24,300	"	"	"	

◇ 막대한 精油業界의 赤字

그런데 日本石油業界가 石油諸稅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배경에는 석유수요 감퇴에 따른 석유회사들의 경영악화때문이다. 그것은 최근에 나온 日本石油주요10社の 81년도경영실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原油價格의 상승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6.8%가 늘어난 15조8천7백15억円을 기록했으나, 판매수량은 오히려 前年對比 3.3%가 줄어든 2억1천5백36만kℓ로 감소했다. 또 이 기간중의 경영실적을 말해 주는 經常利益은 10社 합계로 2천5백3억円의 결손을 기록했다. 이는 이 기간중 2천2백67억円의 換差損이 발생한데 따른 결과로 固定資産이나 有價証券을 매각하여 손실을 축소한다해도 稅後 当期이익은 1천4백33억円의 赤字가 예상되고 있다.

石油수요의 감퇴, 換率상승에 따른 막대한 액수의 換差損, 原料代의 상승과 제품가격의 약세등 3중고에 시달리는 석유업체로서 石油諸稅의 부담경감요구는 死活問題로 제기되고 있다.*

〈表-3〉 産業用 LNG의 各各 支援策

助 成 策	單 價
LNG輸入關稅의 免除	640円/kℓ
" 石油稅의 免除	1,900
LNG에 對한 備蓄義務免除	1,300
産業用 LNG換裝支援	
財政投融资利子補給	209
가스設備固定資産稅의 輕減	9
" 特別稅額控除	63
가스稅의 免除	1,327
計	5,448

〈表-4〉 石油諸稅의 種類와 稅率

(1) 石油關稅率

油種名	稅 率
原 油	640円/kℓ
A 重 油	{ 1 次 1,640円/kℓ 2 次 3,930 "
B 重 油	{ 1 次 1,260 " 2 次 3,930 "
C 重 油	{ 1 次 1,140 " 2 次 3,930 "
揮 發 油	航 空 機 用 3,033円/kℓ
	其 他 用 2,150 "
	石 化 用 125 "
	암모니아·가스用 125 "
燃 料 用 1,075 "	
灯 油	1,010円/kℓ
輕 油	1,890円/kℓ
L P 가 스	암모니아·石化用 280円/t
	其 他 用 550円/t
潤 滑 油	5.9% ~ 12%

(2) 石油消費稅率

稅 的 種 類	稅 率
{ 揮 發 油 稅 地方道路稅 (通稱가솔린稅)	53,800円/kℓ
輕 油 去 來 稅	24,300円/kℓ
石 油 가 스 稅	9,800円/kℓ (17,500円/t)
航 空 機 燃 料 稅	26,000円/kℓ
石 油 稅	輸入原油 (CIF+關稅)×3.5% 国産原油 販売價格×3.5% 輸入製品 [(CIF+關稅)×α]×3.5%

意識改革으로 社会淨化 이룩하자